

매장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생활방역사 2141명 현장점검

서울시 코로나 대응 현황·조치

사적모임 가능인원 최대 6명
거주인구수 절반 이상 1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 98.5% 경증

수도권에서 6일부터 완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기존 밤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가능인원도 최대 6명(접종완료자 4명 포함)까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방역완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방역사 2100여명을 투입해 현장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



6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 "6일부터 식당, 카페, 가정에서 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면서 "서울시는 이 같은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방역사 2141명을 투입하고 관련된 협회와 연계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안내할 것"이라며 "접종 완료자를 증명하는 방법

으로 QR체크를 할 때 동시에 접종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 4주간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면 향후 적절한 수준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0월 이후부터 일상회복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두기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서울시도 방역 및 의료 대응, 예방접종 확대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가 백신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최근 서울에서는 백신 오접종 사례가 잇달아 나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6~27일 서울 소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147명이 맞은 것으로 드러났고, 광진구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대상자에게 안센 백신을 2차 접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관내 오접종 사례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오접종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관리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날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6일 0시 기준 시에서는 약 957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58.1%(555만8869명)가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은 330만 807명(34.5%)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5일 신규는 102건이고, 누적은 3만1892건이었다. 이는 접종자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반응 신고 중 98.5%가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은제이화문합'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서울공예박물관 1908~1910년 제작 대한제국 상징 이화문장식 역사적 의의



은제이화문합.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은 대한제국 황실 전용 공예품 전문 제작기관인 '한성미술품제작소'(1908~1913)에서 만든 의례용 공예품 '은제이화문합'(銀製李花紋合)이 6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된다고 밝혔다.

은제이화문합은 은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 사발로, 음식을 담은 탕기(국이나 찌개를 떠 놓는 작은 그릇)의 일종이다.

높이는 12.4cm, 지름은 18.2cm이며, 1908~191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제이화문합의 바닥면에는 '한성미술(漢城美術)'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어 제작처와 만들어진 시기를

규명할 수 있다. 은제이화문합 외에 국내에 현존하는 '한성미술' 제작 공예품은 5점뿐이라 희소 가치가 높다.

은제이화문합은 뚜껑 중앙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꼭지가 달렸고, 이를 중심으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이화문장)이 양각돼 있다. 뚜껑 측면에는 '만수무강'이 고전적인 전서체로 도금돼 장식됐다.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도교 사상을 담은 칠보문양이 새겨졌다.

동체에는 글자 '길상여의(매사가 상서롭고 뜻하는 바와 같이 되다)'가 전서체로 들어가 있다.

시는 ▲조선왕실 의례용 공예품의 의장(意匠)을 계승했다는 점 ▲당시 해외 신기술인 프레스 기법(강한 압력으로 금속판을 눌러 형태를 만드는 것)을 도입해 만든 최초의 사례라는 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장인 이화문장식으로 공예가 맥을 계속 이어나갔음을 보여주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은제이화문합은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율곡로3길 4)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 상설전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중 '대한제국의 공예'(전시1동 2층)를 통해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공공기관 현장실습 지원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62명이 관내 44개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우먼업 인턴십'은 전문 자격증이 있지만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경력단

절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강화(장롱면허 되살리기)'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수행한 뒤 서울시, 지역 종합병원·어린이집·여성인력개발기관 등 투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에서 4개월간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서남 아트북 특화 공간 이름 지어주세요"

서울시 24일까지 명칭 공모전 진행
서울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에 '아트북(예술책) 특화 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장기간 비어있던 고척스카이돔 지하 1층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2500

m² 규모의 '제2책보고(가칭)'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제2책보고 명칭 공모전을 연다. 서울책보고와 같이 '책보고'와 어울리는 단어를 조합해 '제2책보고(가칭)'의 가치와 정체성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명칭을 제안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추석 차례상, 마트보다 전통시장 '알뜰'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홈페이지서 품목가격·거래동향 제공

서울에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약 6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공사)는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시장 가락몰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해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사가 추석 수요가 많은 36개 주요

성수품목(6~7인 가족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더니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28만3616원, 전통시장은 22만4181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6%, 5% 상승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20%가량 저렴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물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추석 성수품 특성을 감안해 명절 전까지 공사 홈페이지에 주요 품목 가격과 거래동향을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디자인재단 메타버스 내 DDP 구현

서울디자인재단은 국내 대표 메타버스인 '제페토'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구현한다고 6일 밝혔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시설관리자만 올라갈 수 있던 DDP 옥상 공간이 시민 디자인 체험 장소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재단은 내달 중 메타버스 공간에 마련된 DDP에서 '가구 컬렉션'을 공개한다. DDP는 현재 30개국의 112명의 디자이너, 87개 브랜드, 319개 품목, 총 1869개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7 | 해질 / 18:53

9월 7일 (화)
음력 : 8월 1일

수도권 날씨
19~24°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8/23, 동두천 18/22, 가평 17/21, 파주 18/23, 서울 19/24, 양평 18/23, 인천 20/24, 수원 20/24, 용인 20/24, 평택 19/25, 백령도 21/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北 "미국 인종차별, 악성 종양"... 대미 비난 목소리 /사진 뉴스시스
▲'아프간 철군 계기' 급락하는 바이든 지지율

▲탈레반, 아프간 탈출 비행기 출국 비행기 4대 억류
▲중국, 고강도 연예계 규제... K팝계 불통



▲'사실상 낙태금지' 텍사스에 포틀랜드 반발 /사진 뉴스시스
▲중국 쓰촨성서 5~7월 H5N6 A에 5명 감염